



轉換期를 맞은 精油産業

「앞새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天下의 가을을 안다」는 것은 유명한 淮南子에 나오는 말이다. 권세를 휘두르던 英雄의 凋落에도 반드시 전조가 있으니 이를 빨리 알아채는 耆가 다음 번 覇者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사람이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얼굴빛이 이상해지고 목소리가 쉬게 된다. 마찬가지로 企業이나 産業에는 반드시 變化의 징후가 있기 마련이다.

精油産業은 바야흐로 역사적 轉換點에 처해 있는 것 같다. 세계 최대의 國際石油会社인 엑슨은 精油産業을 일종의 斜陽産業으로 규정하여 投資 및 人力配分 결정시 最下位의 순위를 할당하고 있으며, 다른 메이저 石油企業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전반적으로 精油部門의 우선순위를 下向 調整하고 있다. 美國의 경우 原油生産部門과 資本관련이 없이 운영되는 精油会社, 소위 獨立系 정유회사들은 마진의 축소때문에 경쟁으로부터의 보호를 美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세계 최강의 美石油産業(5개의 國際石油資本과 12개의 美國內 一貫石油資本중심)은 81년 1월에 國內原油價格의 국제가격과의 격차철폐(가격 통제 조치철폐)에도 불구하고 精油 및 판매부문에서 극도로 부진하여 실적이 급속히 惡化되기 시작했다. 또 全美 9위의 石油会社 코노코가 듀폰에 買収되고(81년 7월) 17위의 마라톤石油가 유에스 스틸에 買収됐다.

石油産業은 결국 과거에 地球上에서 멸종한 恐龍과 같은 존재로 전락할 것인가?

石油時代는 종말에 가까와 오고 있다. 통계가 가리키는 숫자는 제각기 다르다. 앞으로 石油가 고갈되기까지 몇년이 더 걸릴 것인가에 대해서도 갖가지 理論이 분분하다. 지금은 지나간 예언의 대부분이 바보스러운 것이지만, 단지 한가지만은 확실하다. 그것은 이미 石油文明은 종말이 가까와 오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石油会社도 石油時代가 종말에 가까와 오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國際石油 会社들은 80年代를 살아남기 위한 長期布石으로 石油 이외에 투자대상에 몰려들고 있다.

이와같이 石油産業에 질게 드리워지는 어두운 그림자는 우리에게도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80년에 國內 精油 5社들은 모두 2천억원의 결손을 보았으며, 81년에는 精油部門에서만도 2백46억원의 赤字를 기록했다.

이런 점에서 精油業界로서는 生存性 유지를 위한 企業體質의 강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현재 精油産業이 안고 있는 당면과제는 다음 몇가지로 大別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에너지需給構造의 변화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全体에너지供給의 主宗을 이루었던 石油는 정부의 적극적인 脫石油政策과 LPG(液化石油가스), 石炭등 石油代替에너지에 밀려 점차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 나라의 石油製品消費実績은 70년대의 고도 성장에 힘입어 지난 69년의 5천1백84만8천 배럴

에서 79년에는 1억8천5백37만7천배럴로 10년 동안에 무려 3.7배의 증가를 기록했으나, 그 후 해마다 감소하여 80년에는 1억8천3백49만8천배럴로 前年對比 1.0%가 감소했고, 81년에는 1억8천2백25만2천배럴로 前年對比 0.7%의 감소를 나타냈다.

이와같은 전반적인 石油類소비의 감소추세 속에서 특히 注目되는 것은 LPG등 가스燃料의 石油代替와 石油市場규모의 축소현상이다. 81년의 石油製品소비추이를 보면 휘발유와 輕油는 前年對比 각각 14.5%, 5.8%의 감소를 나타냈다. 또 벙커C油는 前年對比 0.4%가 감소했다.

현재 精油産業이 안고 있는 當面課題는 ① 에너지需給構造의 변화 ② 政府의 油價自律化 움직임, ③ 供給原油의 高硫黃化·重質化를 어떻게 低硫黃·輕質油로 加工處理하여 需要를 충족시키느냐 등이다. 이러한 情勢變化에 能動的으로 対応할수 있는 태세는 갖추고 있는가? 大勢에 밀려 被動的으로만 흘러가는 現狀이 아닌지 안타깝기만 하다.

한편 LPG는 前年對比 10.3%나 증가하여 「燃料의 가스化」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LPG나 LNG가 石油중간제품을 量的으로 압도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燃料의 가스化」 정책에 힘입어 그 比重을 높여갈 것이 틀림없다.

둘째는 政府의 油價自律化 움직임이다. 최근 國際原油市場의 안정추세는 에너지政策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것은 危機管理的 에너지정책으로부터 市場指向的 에너지政策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 精油業界가 원하던 원치 않든 그대로 추진되어 未久에 그 윤곽을 드러낼 것 같다.

따라서 精油業界로서는 이러한 사태의 진전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과 受容態勢의 확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셋째는 石油類제품수요가 장기적으로 低硫黃, 輕質化되어 가는 추세에 비하여 공급원유가 점차 高硫黃 重質化되어 감에 따라 이를 어떻게 가공 처리

하여 수요를 충족하느냐 하는 공통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國內精油業界도 이제는 단순히 증류에 의한 제품생산보다는 重質油의 改質, 分解나 1次 製品의 加工에 의한 부가가치 증가를 위한 시설투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바야흐로 精油産業은 석유정제의 변화속에서 방향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앞으로 脫石油政策이 진전됨에 따라 精油産業과 其他에너지産業의 경쟁관계는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 결국 石油市場규모의 상대적인 축소와 其他에너지와의 경쟁이라는 어려운 경쟁속에 업계 스스로가 油價를 결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정유산업은 이에 対応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果然 우리 精油業界는 이러한 情勢變化에 능동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対応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가? 문외한의 피상적인 短見인지는 몰라도, 未來에 대한 비전도 없이 大勢에 밀려 被動的으로 흘러가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보여져 안타깝기만 하다.

萬物은 流轉한다. 일체가 변화하고 있다. 우리는 激變하는 時代, 격동하는 세계에서 살고 있다. 變化의 속도가 대단히 빨라졌다. Andante의 時代에서 Allegro Vivace의 時代로 변했다.

精油業界도 이러한 變化의 사실을 인식하고, 변화에 창조적 적응을 해야 할 때이다. 變化에 主体的, 능동적 적응을 하지 못할 때, 未久에 사양산업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업계가 일치단합하여 슬기와 힘을 모아 이 난국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